

1999년

모금과 구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DISASTER RELIEF



본협의회 회관 전경

인사말씀



지구의 엘니뇨 및 라니냐현상으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에는 기상이변현상으로 여러차례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7.31~8.18일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를 보는 등 9.29~10.1일에는 제9호 태풍 “예니” 피해로 영남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384여명의 인명피해와 10만여가구가 침수되어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재산피해도 1조5천800억원에 달하여 전국이래 최대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재해이재민을 돕고져 전국언론기관을 통하여 수재이재민돕기 모금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여 사상 유례없는 1,000여억원에 달하는 의연금품을 모집하여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이재민에게 위로금·생계비 등 복구비로 긴급히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IMF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져 유치원생부터 학생·주부·직장인·기업체·교포 등 우방국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본 협의회 설립 40년 이래 최대의 모금이 되었습니다.

모집된 수재의연금품은 이재민들의 재기에 발판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재민들은 이러한 온 국민의 따뜻한 온정에 용기를 얻어 생활안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협의회는 지난해 이재민돕기를 위한 모금에 십시일반 참여하여 주신 국민에게 이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1999년 6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방상훈

본 협의회 역대회장



초대회장
俞 鎭 午
(前)高麗大學校 總長



창립 및 6대회장
柳 達 永
서울大學校 名譽敎授



3대회장
李 寬 求
韓國新聞
放送編輯人協會 初代會長



5대회장
高 在 旭
(前)東亞日報社 會長



4대회장
林 炳 稷
初代 外務部長官



7대회장
柳 建 浩
(前)朝鮮日報社
主筆 및 代表理事



8대회장
崔 鐘 律
(前)京鄉新聞社 社長 및 韓國新聞協會 會長

98年度 水災義捐金品 募集 및 使用公告

지난 여름 지리산 일대 집중호우와 서울·경기등 전국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태풍(예니)피해로 384명의 인명피해와 9만여가구가 침수되어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우리 협의회에서는 실의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위해 언론기관을 통한 범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그동안 국민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신 모집된 금액과 집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수재의연금품 모집내역	68,300백만원
전 국 방 송 사	38,312백만원
전 국 신 문 사	25,218백만원
본 회 접 수 분	4,770백만원
2. 수재의연금품 사용내역	67,466백만원
사 망 자 위 로 금	4,135백만원
침 수 주 택 수 리 비	6,989백만원
장 기 구 호 비 외	2,448백만원
추 석 특 별 위 로 금	45,549백만원
주 택 복 구 비	8,345백만원

3. 수재의연금품 모집 및 전달

총 접 수 량 : 380여만점(환가액 380여억원 상당)

총 전 달 량 : 366여만점(환가액 350여억원 11통차량 900대)

수재의연금품은 재해지역 8개 시·도, 38개 시·군·구에 전달
잔량은 차기 재해시 지원될 것임.

1999년 6월

전 국 재 해 대 책 협 의 회
회 장 방 상 훈

設立趣旨 및沿革

1. 趣 旨

毎年 뜻하지 않게 發生되는 각종 災難으로 인하여 많은 동포들이 人命과 財産의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政府에서도 이러한 災難에 대하여 그 豫防과 事後對策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制限된 財政으로 소기의 성과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동족이 겪는 災難을 政府의 힘에만 의존할것이 아니라 동포끼리 서로 돕고 동포애 발양으로 불의의 災難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있는 罹災民에 대한 復舊의 발판이 되어주고저 災害對策을 위한 常設機關으로 本協議會를 設置하고 災害募金을 一元化하여 迅速하고 效率的인 災害救護事業을 展開코저 합니다.

2. 目 的

不時로 發生하는 災害의 復舊와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國民義捐金品の 募集과 관리 및 配分을 통하여 隣保相助의 동포애를 바탕으로 福祉社會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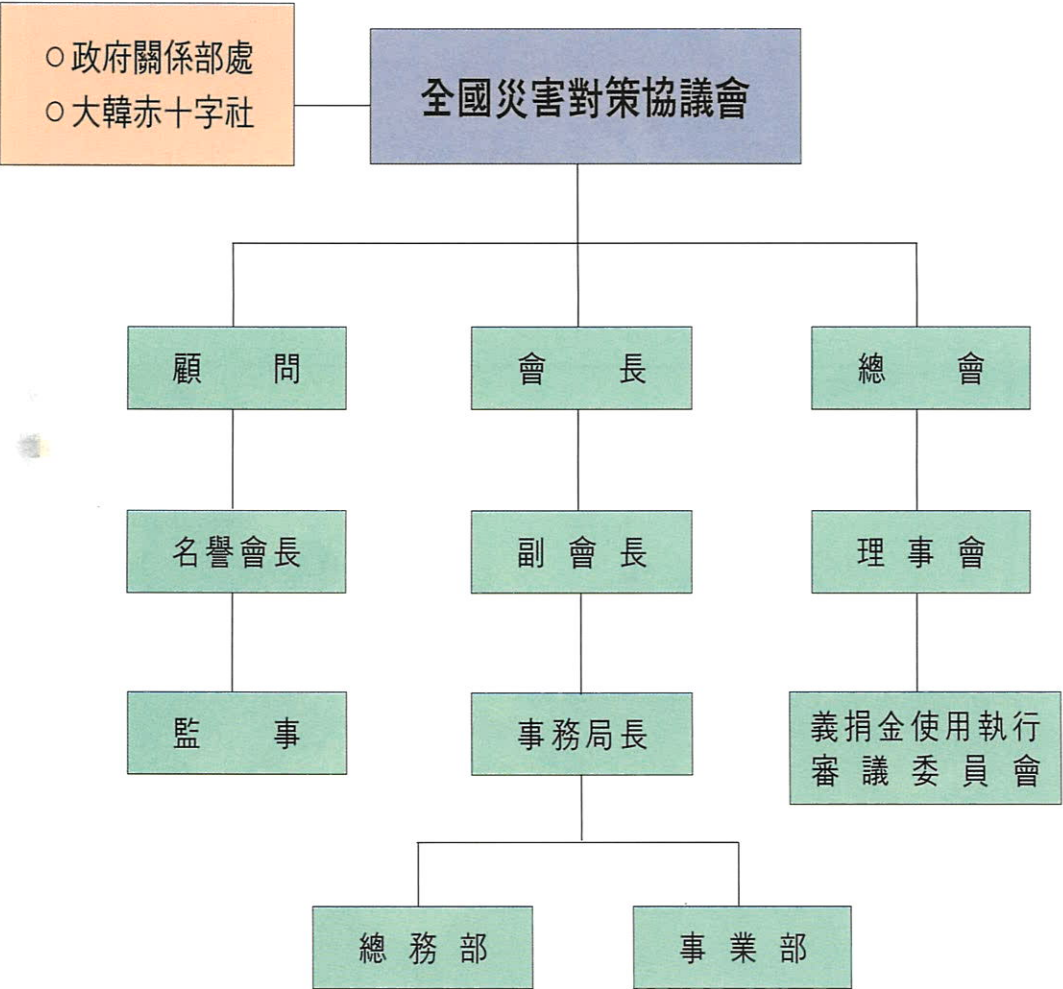
3. 沿 革

- (1) 1961년 7월 13일 全國水害對策委員會 組織
- (2) 1961년 10월 26일 全國災害對策委員會 創立總會
- (3) 1964년 9월 3일 保健社會部에 社會團體 登錄
- (4) 1964년 10월 31일 全國災害對策協議會로 改稱
- (5) 1968년 10월 15일 社團法人으로 改編

4. 事業

- (1) 災害復舊 및 救護를 위한 國民義捐金品 募集事業
- (2) 前號事業에 대한 企劃, 統制, 調查研究 및 弘報事業
- (3) 災害罹災民 救護事業
- (4) 其他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

5. 機構表



‘98년도 결산 및 ‘9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



‘99년 2월 26일 본협의회 총회 및 이사회 개최



‘98. 7. 31 ~ 8. 18일 호우피해 현장



’98. 8월 호우피해로 시가지가 침수되어 큰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시가지가 범람하여 주민들이 보트를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98. 8월 호우피해로 축사 및 농경지 침수
〈충북 보은군 탄부면〉



〈충북 보은읍 강신리〉

‘98. 9. 30 ~ 10. 1일 태풍(예니)피해 현장



태풍(예니)피해로 도로 및 농경지가 범람하고 주택이 침수되었다.



‘98.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주택복구



국민의 성금이 포함되어 건립된 수해복구 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3동 578-74

재해이재민에게 구호품 전달 및 배분과정



80년이후 재해피해 현황

종목 연도	사망 (인)	이재민 (인)	침수면적 (정보)	건물 (천원)	선박 (천원)	농경지 (천원)	농작물 (천원)	공공시설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1980	279	53,860	115,762	13,846,907	8,860,167	55,270,136	103,918,226	176,469,902	25,784,735	384,150,073
1981	216	18,306	149,583	5,204,366	3,449,505	17,379,002	26,302,862	128,154,789	15,178,766	195,669,290
1982	121	6,609	37,007	1,228,263	1,534,176	6,744,893	41,635,912	61,676,394	12,266,896	125,086,534
1983	91	1,348	25,061	3,162,171	1,550,538	138,752	15,188,214	6,507,669	3,103,036	29,650,380
1984	265	364,231	140,380	13,454,063	993,941	28,009,418	99,314,267	183,504,374	53,143,892	378,419,955
1985	250	72,257	126,178	1,803,173	7,977,547	2,377,968	107,352,774	66,359,223	20,226,159	206,096,844
1986	156	99,114	87,855	2,941,537	3,642,954	2,509,788	264,024,043	59,795,871	24,732,417	357,646,610
1987	1,022	272,277	299,466	20,946,955	29,429,957	103,445,798	343,958,921	823,212,202	292,687,632	1,613,681,465
1988	143	5,053	17,987	876,812	2,207,773	15,690,983	20,149,147	122,916,222	39,397,248	201,238,185
1989	307	92,593	121,060	8,658,005	7,769,260	20,972,196	336,193,654	298,961,795	468,551,730	1,141,106,640
1990	257	203,314	124,276	12,957,161	4,263,144	63,152,220	206,123,131	388,250,184	444,318,036	1,119,063,876
1991	240	29,573	61,173	6,636,658	2,937,230	51,448,241		399,009,408	58,811,734	518,843,271
1992	40	965	13,969	127,686	1,427,862	1,825,634		19,751,168	8,464,744	31,597,094
1993	69	13,779	58,489	1,516,004	13,732,683	13,020,953		198,435,242	28,271,946	254,976,828
1994	72	11,852	6,275	701,390	5,518,450	13,780,502		109,209,650	69,993,931	199,203,923
1995	158	30,408	79,253	5,965,230	8,372,006	73,423,845		522,464,024	112,960,442	723,185,547
1996	77	18,686	47,968	17,448,955	996,286	63,048,604		389,939,798	91,656,736	563,090,379
1997	38	6,296	45,774	2,109,251	3,133,652	12,466,740		164,191,800	32,343,012	214,244,455
1998	384	30,308	91,628	38,618,311	1,316,397	105,291,458		1,227,365,997	210,218,675	1,582,810,838
합계	4,185	1,330,829	1,649,144	158,202,898	109,113,528	649,997,131	1,564,161,151	5,346,175,712	2,012,111,767	9,839,762,187
연평균	220	70,043	86,797	8,326,468	5,742,817	34,210,375	82,324,271	281,377,669	105,900,619	517,882,219

(98년 가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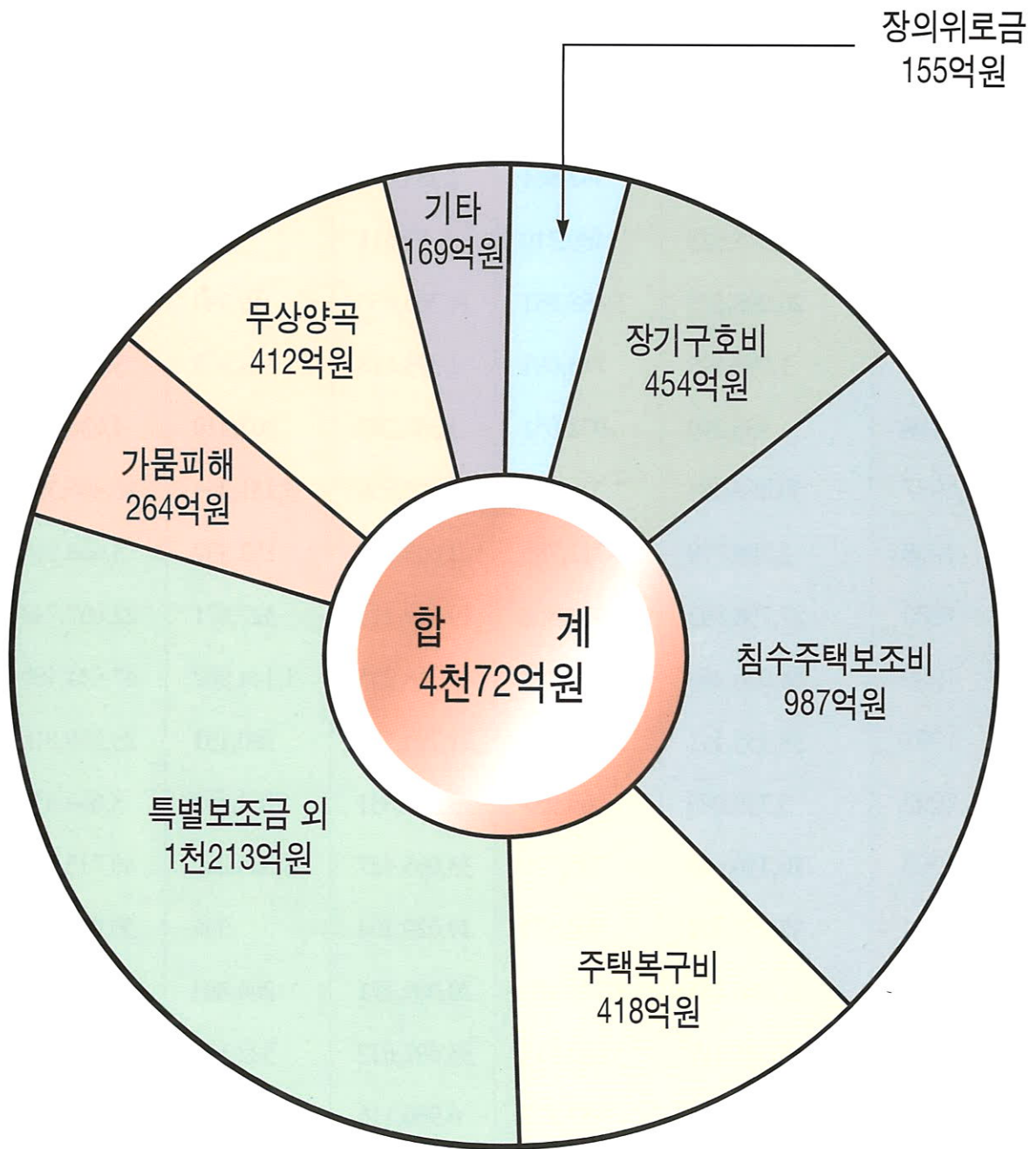
80년이후 재해모금 및 구호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모금및이자 수 입 액	구 호 비			
		주택복구비	긴급및장기 구호비 외	기 타	합 계
1980	12,224,415	4,315,182	2,383,732	2,453,317	9,152,231
1981	9,783,936	2,150,089	4,275,908	378,010	6,804,007
1982	1,952,524	542,864	2,485,083	385,284	3,413,231
1983	1,205,528	489,710	52,611		542,321
1984	26,098,375	1,458,851	24,765,650	46,940	26,271,441
1985	1,792,495	743,091	2,393,816	304,370	3,441,277
1986	535,299	972,651	3,356,787	307,410	4,636,848
1987	50,468,083	7,225,790	36,109,559	3,131,244	46,466,593
1988	2,708,779	712,786	2,603,798	152,332	3,468,916
1989	27,798,892	2,910,862	19,429,215	327,671	22,667,748
1990	64,026,268	3,021,283	43,368,235	1,144,962	47,534,480
1991	38,455,441	1,684,160	21,794,725	180,131	23,659,016
1992	5,739,089	60,937	3,340,831	262,663	3,664,431
1993	10,136,610	785,770	33,065,427	6,864,212	40,715,409
1994	32,251,421	380,374	29,629,104	346	30,009,824
1995	21,086,111	2,279,480	20,089,271	260,883	22,629,634
1996	47,445,117	3,032,618	33,692,612	322,115	37,047,345
1997	3,199,222	657,272	6,930,116	1,066	7,588,454
1998	73,903,641	8,344,900	58,711,705	409,208	67,465,813
평 균	430,811,246	41,768,670	348,478,185	16,932,164	407,179,019

(98년도 가격기준)

80년이후 도표로 본 재해구호 현황



(98년도 가격기준)

의약품 총 접수내역

(1961 ~ 1998)

품 명	단 위	단 가	총 수 량	환가액 (천원)
의 류	점	35,000원	7,554,874	264,420,590
침 구 류	매	30,000원	179,340	5,380,200
버 너	대	15,000원	24,360	365,400
생 필 품	점	1,000원	1,922,761	1,922,761
신 발 류	켤레	30,000원	139,736	4,192,080
세 제 류	점	1,000원	364,605	364,605
의 약 품	점	2,000원	1,927,759	3,855,518
학 용 품	점	1,000원	1,984,467	1,984,467
식 품 류	점	1,000원	1,613,398	1,613,398
라 면	상자	10,000원	78,150	781,500
식 기 류	점	3,000원	161,126	483,378
백 미	kg	1,200원	408,091	489,709
생 수	톤	250,000원	306	76,500
건 축 자 재	점	20,000원	1,149,915	22,998,300
가 구 류	조	300,000원	2,149	644,700
벽 지	평	3,000원	94,162	282,486
기 타	점	10,000원	1,971,269	19,712,690
양 수 기	대	100,000원	51	5,100
합 계			19,576,519	329,573,382

(98년도 가격 기준)

'98 재해의연금 모금 현황

(단위 : 원)

언론사	구분	모 금 액	공무원모금	학생모금	기업체모금	일반모금	해외모금
한국방송공사		20,807,805,466	2,143,989,636	1,577,652,751	8,009,621,660	8,973,670,201	102,871,218
문 화 방 송		11,396,388,793	676,713,230	916,837,280	3,896,558,437	5,896,279,846	10,000,000
서 울 방 송		3,878,197,845	155,254,870	128,254,020	658,145,650	2,936,543,305	
기타방송외		2,229,999,573	211,590,980	251,264,290	822,119,120	945,025,183	
경 향 신 문		132,844,446	72,134,550	1,097,250	35,087,000	24,525,646	
국 민 일 보		940,603,799	29,970,400	11,460,930	74,031,450	807,141,019	18,000,000
동 아 일 보		1,693,805,296	93,178,630	317,877,310	776,621,048	469,882,598	36,245,710
문 화 일 보		107,143,926	59,484,185		40,950,890	6,708,851	
조 선 일 보		6,070,886,889	118,200,320	703,874,670	3,646,715,630	1,602,096,269	
한 국 일 보		2,645,233,077	251,734,851	485,151,595	991,541,236	554,905,315	361,900,080
중 앙 일 보		1,225,123,666	54,921,958	123,970,000	408,208,450	432,828,102	205,195,156
서 울 신 문		387,625,331	192,883,500	1,491,000	96,370,703	96,880,128	
한 겨 레 신 문		208,890,014	34,572,699	9,107,440	49,929,940	115,219,935	60,000
세 계 일 보		68,349,070	22,612,000	4,510,420	14,812,200	26,414,450	
매일경제신문		1,132,932,173	6,504,000	14,142,650	1,010,667,898	101,617,625	
내외경제신문		56,860,941			51,468,941	5,392,000	
한국경제신문		865,888,792	30,498,330	3,332,980	812,062,982	19,994,500	
지방신문사외		9,681,379,338	1,132,721,382	1,200,491,038	3,630,517,252	3,717,649,666	
본 회 접 수 분		4,770,059,686	97,936,325	256,255,262	3,031,424,837	170,275,202	1,214,168,060
합 계		68,300,018,121 (100%)	5,384,901,846 (8%)	6,006,770,886 (9%)	28,056,855,324 (41%)	26,903,049,841 (39%)	1,948,440,224 (3%)

'98 시도별 재해의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시도	사망·부상자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침수주택 수리비	주택 복구비	생계 보조비	세입자 보조비	이재민 특별위로금	기타	계
서울	180,000	749,649		173,000			16,012,200		17,114,849
부산	185,000	3,507		3,000			28,000		219,507
인천	100,000	24,938		64,000			1,006,000		1,194,938
대구	60,000	8,831	119,250	11,000		1,500	145,300		345,881
대전				22,000			18,400		40,400
광주	20,000	365	3,600	26,000			37,500		87,465
울산	25,000	2,489	900	4,000	279		4,600		37,268
경기	1,920,000	256,169	1,800	1,884,000		1,582,500	18,085,600		23,730,069
강원	30,000	6,714	7,350	101,000		6,000	77,000		228,064
충북	35,000	36,355	1,950	815,000	2,500	16,500	667,000		1,574,305
충남	100,000	304,903		334,000		592,500	1,574,000		2,905,403
전북	27,500	145,192		163,000		4,500	71,600		411,792
전남	257,500	126,453	415,350	212,000		6,000	437,400		1,454,703
경북	522,500	281,021	6,168,450	2,115,000	6,500	132,400	6,842,900		16,068,771
경남	672,500	63,957	269,100	76,000	16,893		541,000		1,639,450
제주		2,240	900				600		3,740
기타								409,208	409,208
계	4,135,000	2,012,783	6,988,650	6,003,000	26,172	2,341,900	45,549,100	409,208	67,465,813

의연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도기사

**태풍 「애니」피해 구호비
재해대책協, 142억 전달**

이날에 지원된 구호비는 부문별로 천수 주택 보조비가 69억8천3백만원, 사망·실종자 위로금이 4억4천5백만원, 주택 복구비 9억1천4백만원, 이재민 특별 위로금 59억1천3백만원 등 총 142억5500만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올 하반기 총 670억 지원

전국재해대책협의회(회장 방상훈)는 지난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한달간 전국 언론기관에서 수재 이재민 돕기 의연금품 모집으로 모두 6백65억원이 모였으며, 지난 7·8월 호우와 지난 9·10월 태풍 「애니」 피해 이재민에게 모두 6백70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金榮喆기자·yokine@chosun.com〉

(조선일보 11월10일자 2면)

언론 수재의연금 접수 665억원·물품351만점 전국재해대책協 밝혀

전국재해대책협의회(회장 방상훈)는 8월7일부터 9월6일까지 전국 언론기관 등을 통해 총 665억5,530만원의 수재의연금과 351만9,827점(370억 상당)의 의연금품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된 수재의연금품은 태풍 「애니」로 피해를 본 경북·전남지역 수재민에게 142억여원이 지원되는 등 이날까지 수재지역 시도에 전액 지원됐다. 이중 한국일보 접수분은 성금 26억2,218만원, 물품 67만여점(9억2,000만원 상당)이다.

(한국일보 11월10일자 2면)

태풍 '애니'이재민에 142억 지원

김대영 기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애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142억원이 전달됐다.

전국재해대책협의회(회장 방상훈)는 태풍피해를 입은 해당 시·도에 침수주택보조비로 69억8300만원, 이재민특별위로금 59억1300만원, 사망·실종자 위로금 4억4500만원 등 총 142억5500만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구호비를 포함해 올 들어 수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670억원 규모.

세부 내용은 8월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된 구호비 132억원, 추석특별위로금 396억원, 태풍 애니 구호비와 위로금 142억원 등이다.

8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언론기관을 통해 이재민 구호비로 모금된 액수는 총 665억원, 신문사 모금액은 252억원, 방송사 367억원,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모금액은 46억원이다.

(매일경제 11월10일자 31면)

최근 5년간 재해의연금 모집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수입	합 계	49,333,238	27,943,482	49,833,550	20,903,110	88,044,630
	전년도이월금	27,693,285	10,415,542	9,132,478	18,052,263	14,140,989
	모금수입	19,067,869	16,421,556	39,475,724	30,900	68,300,018
	이자수입	1,439,684	925,188	805,673	819,456	2,245,050
	집행잔액반환금	1,132,400	181,196	419,675	2,000,491	3,358,573
지출	합 계	38,917,696	18,811,004	31,781,287	6,762,120	67,465,813
	장의, 위로금	1,390,000	833,000	307,500	290,000	4,135,000
	응급구호비			367	2,747	
	장기구호비	875,114	1,294,151	869,920	168,728	2,012,783
	생계보조비	1,250	40,750	330	4,995	26,172
	주택복구비	298,960	1,864,800	2,376,000	581,200	6,003,000
	세입주보조비	3,000	30,030	225,550	4,500	2,341,900
	침수주택수리	594,500	4,981,850	7,417,200	5,709,000	6,988,650
	추석절미귀가 세대위로금			7,558,520		39,636,200
	이재민특별위로금	12,000	2,074,100	11,001,800		5,912,900
	무상양곡	18,789,597	7,475,462	1,747,771		
	가뭄극복대책비	16,953,000				
	긴급생필품구입비		200,000			300,000
	기타	275	16,861	276,329	950	109,208
잔액		10,415,542	9,132,478	18,052,263	14,140,990	20,578,817

재협의 설립배경과 구호실적

우리나라는 매년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예방 및 구호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원과 한정된 재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 재해대책협의회는 재해로 실의에 빠진 이재민을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리의 오랜정통을 계승,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을 동포애로써 보살펴주고 서로 도와 조기에 생활안정을 이루고 자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모금운동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의해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그 후에도 각종 재해 발생시 언론기관 등에서 의연금품을 모집 독자적인 이재민구호에 나섰으나 통일된 방침과 일원화된 체계가 없었으니 편중구호와 누락구호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1961년 7월 언론기관대표 및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모여서 어려울 때 일수록 상부상조하는 우리의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킴과 함께 효율적인 구호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각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구호사업을 일원화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조직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 전국수해대책위원회(현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의 전신)를 발족시키게 된다.

이런 전국수해대책위원회는 1961년 7월 13일로부터 재해의연금품 모집의 유일한 창구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재해의연금 모집 및 이재민 구호업무를 수행하며 현재까지 이재민 구호비로 지원한 수재의연금이 4천5백억원이 넘고 있으며, 구호물품은 총 1천6백여만점(환가액 2천7백억원)에 이르는 등 가히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구호실적으로 민간 재해모금 및 구호활동의 정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전국재해대책협의회는 항시 의연금의 확보와 구호물품의 비축을 통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일단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재의연금품을 모집하여 이재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지원하고 있다.

수재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절차

모금실시 방식

- 매년 2월 본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재해모금계획(안)을 승인받아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전국 언론기관에 의뢰 범국민적인 수재의연금품 모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전국 언론기관을 통해 모집된 수재의연금은 「의연금 중앙일원화 원칙」에 의해 본 협의회로 집금되어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의연품은 즉시 재해지역에 전달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구호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 훈령 제81호 「의연금 관리·운용기준」에 따라 특별 지원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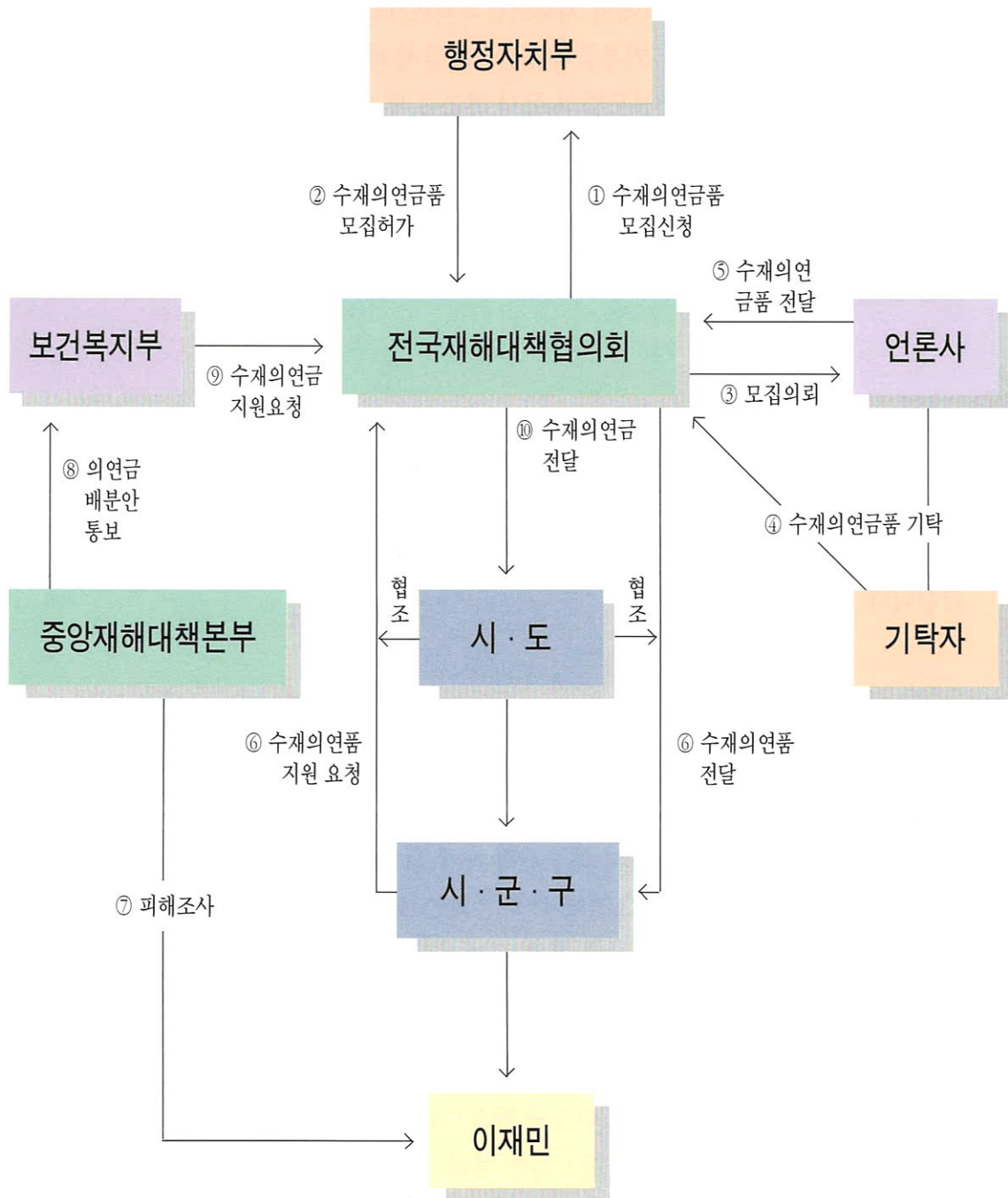
지원 절차

- 수재의연금의 집행은 행정자치부의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조사에 따른 정부종합구호에 따라 의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지원절차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 속에 의연금 지원액이 결정되어 지고,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본회는 재해지역 시·도의 사회복지과에 전달하면, 이를 다시 시·군·구를 통해 수해이재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 보건복지부 →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시·도 → 시·군·구 → 이재민〉

- 지원기준에 맞추어 지원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훈령 「의연금 관리·운용기준」에 맞추어 특별 위로금 형식으로 이재민에게 추가 지원되고 있으며,
- 또한 수재의연금 지원은 모금을 실시하는 재해 발생시 뿐만 아니고 중·소 규모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도 구호비지원기준에 의거 공평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연품은 기탁자가 언론사를 통해 본 협의회에 접수하고, 이를 피해규모 및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품 모집 및 전달과정



재해구호

(보건복지부)

원칙

- 신속한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실시
- 재해지역의 철저한 방역 및 의료구호
- 비축물자의 적기공급 및 과학적인 보관관리

1. 개 요

가. 구호목적

- 한해·풍해·수해·화재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 및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사회질서 유지를 기하기 위함.

나. 구호대상

(1) 중앙지원 대상

- 재해구호법에 의한 기준
 -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 이상, 광역시는 30세대 이상, 시·군은 20세대 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
 - 동일 지역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100명 이상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동 규정 제3조)
 -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특별시의 구 : 20억원
 - 광역시의 구, 인구 30만이상시 : 11억원
 - 기타 시·군 : 7억원

(2)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지역의 구호기관의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99년도 이재민 구호기준”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

- 구호비용은 구호기관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구호계획 및 구호체계

(1) 계획수립

- 시·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재해구호계획을 수립(년초)
 -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계획
 -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리계획
 - 재해지역 방역 및 의료구호 계획 등

(2) 재해구호기구 설치

- 중앙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 재해구호활동반
 - 재해 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계확립

2.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내용

가. 시·도 재해구호기금 우선활용 지원

- 중앙지원대상의 경우일지라도 위로금·생계보조금, 응급·장기생계구호비, 세입주자보조비 및 침수주택수리비 등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우선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 국고 또는 재해의연금으로 정산함.
- 인위재난의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99년도 이재민구호비지원기준에 따른 생계구호 및 기초 생활필수품을 우선지원 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따른 비용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및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협의 결정되는 바에 따라 관련예산으로 정산하거나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여야 함.

나. 지원기준

(1)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

- 위로금(장의비 포함)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시·도 보유재해구호기금

에서 위로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함.

-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 1,000만원
-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원인 경우 : 500만원
- 부상자는 사망·실종자 위로금의 50퍼센트 지급

〈위로금 지급시 유의사항〉

- 위로금은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급
-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은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상 직계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함.
- 세대주는 성별·연령·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함.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함.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 생계보조금

- 재해로 인하여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함으로써 그 유족 및 부상자의 생활상태가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생계보조금을 지급함.

- 1급 : 생계 유지가 극히 곤란하여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세대당 500만원 지원
- 2급 :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자활보호세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세대당 400만원 지원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이재민생계구호

○ 응급생계구호

- 주택의 전파·반파·침수 등으로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간의 응급생계구호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이재민의 응급생계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수용시설 확보(임시주거시설 설치 포함), 식량, 의류, 침구, 취사·난방기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 생활필수품의 제공.
 -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 구호관련 단체와 협조.

※ 시·도지사는 구호기준에 의한 구호 이외에도 자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기초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수 있음.

- 기초 생활필수품 지원에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등에서 지원되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함.

○ 장기생계구호

-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주민에게는 1개월 내지 3개월(응급구호기간 포함)의 범위내에서 구호를 실시함.

- 농경지 2ha미만 경작지로서 80%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와 소규모 농림시설, 소규모 축산물증식시설 및 가축, 소규모 어망·어구, 소규모 수산물증·양식시설 및 수산 생물등이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 3개월까지
- 주택전파 : 2개월까지
- 주택반파 : 1개월까지
- 10톤미만 어선의 전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2개월까지
- 10톤미만 어선의 반파(선주 및 이에 소속된 선원) : 1개월까지

※ 대규모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구호실시 가능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세입자(전·월세)는 대상자에 포함.

(3) 재해복구지원

○ 세입주자 보조비

-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실계약금을 지원함.

○ 침수주택 수리비

-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리비를 지원함.
 - 침수 주택 : 세대당 60만원

〈수리비 지원의 유의사항〉

- 세입주가 피해대상자인 경우, 침수주택수리비 지급은 세입주자에게 지급하되, 주택소유자가 이를 복구하였을 때에는 세입주자와 주택소유자중 침수된 방의 수리비를 누가 지출하였는지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 특별위로금은 세입주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99년도 구호비 지원기준

(중앙재해대책본부제정)

구 분	종 별	단 위	지 원 액	재 원
사 망 자 및 실 종 자	위 로 금	인	세대주 10,000천원	의연금 100%
			세대원 5,000천원	
부 상 자	"	인	세대주 5,000천원	의연금 100%
			세대원 2,500천원	
응 급 생 계 구 호 비	최초7일간	1인/1일	2,226. ⁸⁰ 원	국고 70% 재해구호기금 15% 의 연 금 15%
장 기 생 계 구 호 비	1~3 개월	1인/1일	2,068. ⁴¹ 원	국고 70% 재해구호기금 15% 의 연 금 15%
생계보조비	1급	세대	5,000천원	국고 50% 의 연 금 50% 가구의 주수입원이었던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경우 그 유가족
	2급		4,000천원	
침 수 주 택 보 조 비	침수주택	"	600천원	의 연 금 100%
주 택 복 구 비	전파주택	동	27,000천원	국고및지방비(20%) 5,400,000 의 연 금(10%) 2,700,000 장기저리융자(60%) 16,200,000 자 부 담(10%) 2,700,000
	반파주택	"	13,500천원	국고및지방비(20%) 2,700,000 의 연 금(10%) 1,350,000 장기저리융자(60%) 8,100,000 자 부 담(10%) 1,350,000
세 입 주 자 보 조 비	월 세 및 전 세 금	세대	3,000천원 범위내 실계약금	국 고 30% 의 연 금 50% 지방비 20%

3. 재해구호물자 관리

가. 적용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 (전시재해구호물자 포함)
- 시·도에서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자체 확보한 재해구호물자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기탁된 재해구호물자

나. 비축물자 확보

- 시·도지사는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최근 5개년간의 시·군·구별 재해발생현황, 물자지원실적 및 지역실정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량을 상시 확보하여야 함.
- 재해구호물자 비축시에는 소요물자별 비축량, 비축기간 등 비축기준을 설정하되 생활필수품은 개인용, 세대용 등으로 패키지화 하여 보관토록 함.
- ※ 변질 우려가 있거나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비축하지 말고 구매선을 사전 파악 관리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재해구호물자중 낡고 변질되어 사용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은 불용처분 또는 관리전환 등으로 처분하고 현실에 맞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함.
- ※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한 물품은 반드시 폐기처리하여야 함.

다.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보관

- 시·도지사는 최근 5개년동안 평균 구호실적을 파악하여 교통, 재해 상습지역 등을 고려한 전용창고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재해구호 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앙 비축창고 건립 방안 모색.
- 전시구호물자는 별도 보관·관리하지 말고 재해구호물자와 함께 보관·사용하되 그 내역을 비치·관리하고, 사용 즉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비축하여 비축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비축물자 보관창고를 신축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 위임 및 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물자의 입·출고 및 보관물자의 망실, 훼손, 보관 상태 등의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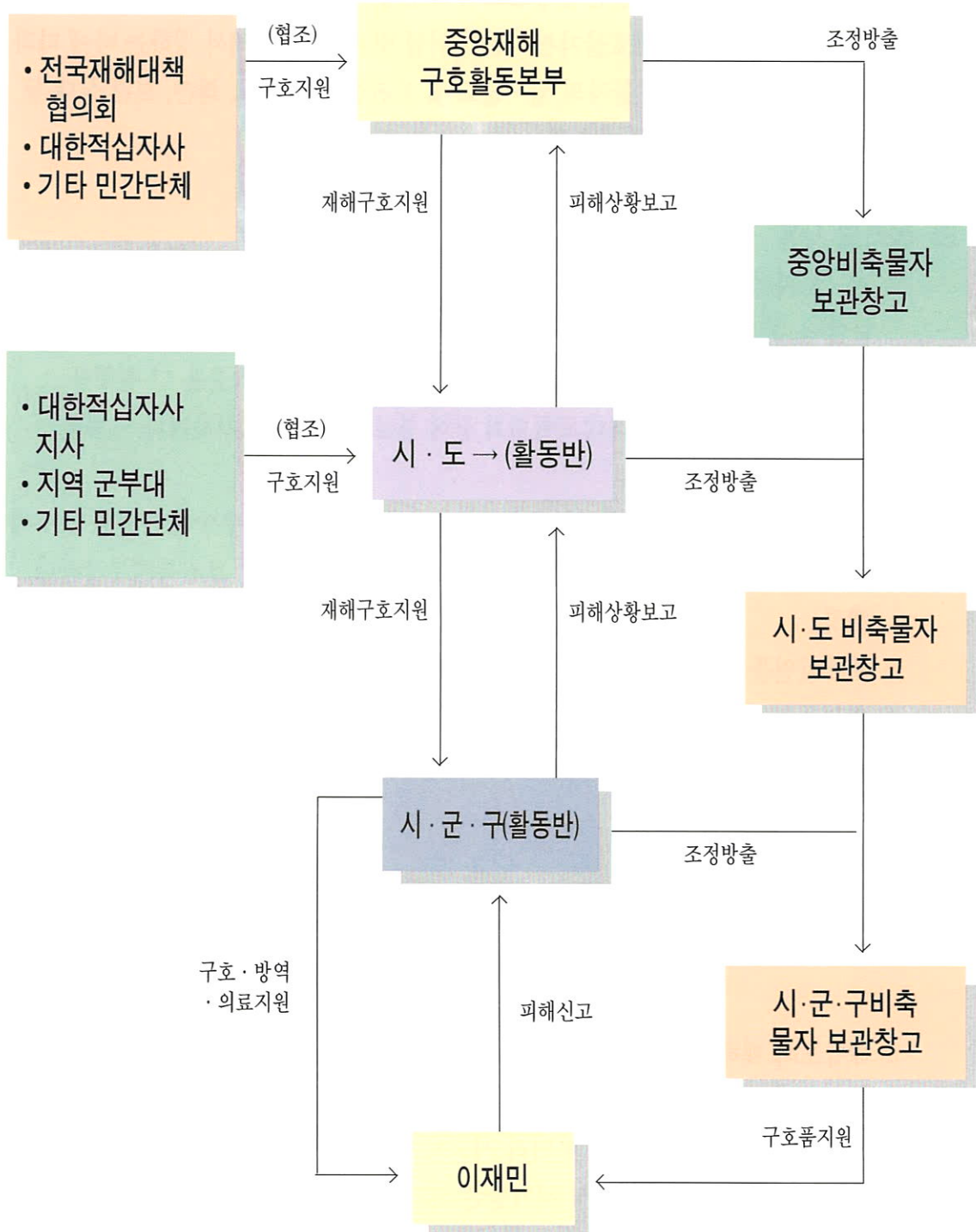
라. 물자의 사용

- 시·도지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보관 중인 물자로 우선 지원
- 시·도지사는 계속적인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중 부족분은 그 현황을 대한적십자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등에 통보하여 지원요청하거나 업체를 통해 구매조달
- 재해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창고의 보관물자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시·도의 물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급조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 재해의연품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시·도지사는 의연품 보관창고를 확보하여 의연품의 효과적인 수급을 기한다.(불필요품목과 중복지원방지)

4.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 대규모의 재해 발생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연금품 모집을 주관함.
- 의연금품모집 중앙 일원화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접수된 의연금품이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허가받은 기부금품 모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즉시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하여야 함.
- 대규모 재해발생시에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일일보고 하여야 함.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의연금 관리 · 운용 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8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의 모집 및 관리 · 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3조(의연금운용 계획) ① 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 (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매회계년도마다 연도개시 의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연금 운용계획에는 수입 ·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의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제5조(의연금 사용) ① 의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재해이재민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
2.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3. 모금경비 및 협의회 운영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초과유보의연금의 특별사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해지역 관할시 · 도지사
의 요청에 따라 제5조규정에 의하여 의연금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의연금 사용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

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이재민의 구호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수 있다.

1.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50만원 이내의 명절 특별위로금(설날, 추석, 성탄절 및 부처님오신날로서 재해 발생후 처음 맞게 되는 날에 한 한다.)
2. 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시 세대당 1일 2,000원 이내의 연료비
3.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가구에 대하여 전파의 경우는 세대당 300만원 이내, 반파의 경우는 세대당 150만원이내, 침수주택 60만원 주거비 보조
4. 이재민에 대한 세대당 30만원 이내의 월동대책비
5.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유족에 대하여는 1인당 1,000만원 이내,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7급이상)는 500만원 이내의 위로금

제7조 삭 제

- 부 칙 -

- ① (시행일) 규정은 199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 ① (시행일) 규정은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 목 적

매년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 많은 동포들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예방과 사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고작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왔으며 동포애와 환난상휼의 오랜전통은 지금도 연면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리협의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생활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깊은 실의에 잠겨있는 이재민들에게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조속히 생활안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져 언론기관을 통한 범국민적인 모금사업을 전개코져 합니다.

2. 모금 목표액 : 500억원

3. 모 집 기 간 : 대규모 재해발생시

4. 모금내역

가. 기탁모금

나. 지 역 : 전 국

다. 대 상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각 신문사 및 방송사등에 기탁되는 국민의연금품과 해외동포로부터 기탁되는 의연금품

라. 방 법

(1) 각 신문사 및 방송사에 기탁되는 의연금은 종합구호계획에 의한 중앙 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및 유선방송협회에서 집금하여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전달토록 한다.

(단, 신문, 방송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언론사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송금토록 한다.)

(2) 중앙언론 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령하여 재해 지역 행정기관의 요청 및 재해지역 이재민가구수와 재해피해액에 의거 균등하게 배정토록하고 재해피해지역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시·도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여 이재민에게 배정토록 한다.

(단, 재해발생지역이 아닌 시·도 및 언론기관에 접수된 의연물품은 해당 적십자사에 전달하거나 본협의회와 협의하여 전달토록 한다.)

(3) 각 시·도 및 시·군·구에 기탁되는 수재의연금은 자치단체에서 접수를 대행 언론기관이나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이관토록 한다.

(※ 모집자의 의뢰에 의해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4) 재해지역 행정기관에 지정기탁된 수재의연금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하여 사용하되 사용내역을 보건복지부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에 통보하여 재해의연금 지급시 정산토록 한다.

(5) 언론기관은 특정인이나 전달처를 지정한 수재의연금품은 접수할 수 없으며 기탁자가 지정기탁을 희망할 경우 직접 희망지역에 전달토록 한다.

(6) 공무원 모금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중사급이상,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 금융기관근무 임직원 등으로 부터 이재민구호를 위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해의연금으로 기탁토록 하고, 모집된 의연금품은 언론기관에 전달토록 협조의뢰 한다.

(7) 기업체 모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산하회원 기업체에 협조

서한을 발송하고 이재민구호를 위한 의연금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록 의뢰한다.

(8) 각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 서한을 발송하고 재해의연금 모금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뢰한다.

5. 의연금 사용

가. 모금된 의연금은 재해구호비등 복구비용부담기준(중앙재해대책본부) 및 정부종합구호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지원기준 별표 참조)

나. 모집된 의연품은 재해지구 재해대책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에 배정하여 이재민에게 배분토록 한다.

다. 의연금품 모집과 복구사업이 종료되었을때에는 모집내역 및 사용실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동포애에 감사하는 뜻을 표시하도록 한다.

● 물과 지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약 13억 8,600만 km^3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바닷물이 96.5%인 13억 3,800만 km^3 이고, 지하염수가 0.94%, 염호수가 0.006%이며, 나머지 2.53%인 3,500만 km^3 만이 민물로 존재한다.

민물 가운데 68.7%정도인 2,400만 km^3 은 빙산·빙하 형태이고, 지하수는 30.15%인 1,000만 km^3 정도며, 나머지 1.15%인 100만 km^3 가 민물호수나 늪, 강, 하천 등의 지표수와 대기층에 분포하고 있다.

● 물의 탄생

과학자들은 약 46억년 전에 태양을 감싸고 있던 가스구름 속에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별들이 생겨났고, 최초의 지구는 뜨거운 가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스가 냉각되면서 수소와 산소원자가 안개처럼 한 덩어리로 만났고, 여기에서 생긴 수증기 안개가 수백년동안 끊임없이 비를 뿌려 지표면이 식어가면서 단단한 층을 이루었다.

태초의 바다인 민물바다가 생겨났고 산들이 깎여 평야가 되고 이 평야는 다시 바다로 씻겨 들어가며 지각 변동으로 바다속에서 새로운 산이 솟구쳐 오르기도 했다.

태초의 바다가 만들어지는 동안 생명체의 바탕이 되는 유기물이 만들어 졌다. 이 유기물은 진화를 거치면서 최초의 가장 간단한 생명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지구와 생명체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물이었고, 이 모든 과정을 되풀이 한 것도 물이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이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생명의 젖줄인 것이다.

● 물의 순환

지구탄생의 역사에서 물은 최초로 생긴 물질중의 하나이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생겨났을 때의 물이 한 방울도 더 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물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지구의 물은 바다, 대기, 육지 사이에서 증발하고 비가 되어 다시 내려 대부분은 하천이나 강으로 흐르기도 하고 곧바로 증발하는 등 ‘물의 순환’을 되풀이 하면서 이동한다.

지구에 1년간 떨어지는 물의 양은 총 11만 3000km³ 정도다, 얼음을 뺀 전체 민물양의 1/4에 이르는 양이 매년 새 물로 바뀌는 셈이다.

대기중의 수분 모두(1만2,900km³)가 한꺼번에 비가 되어 내린다면 지구의 표면은 25mm의 물로 덮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기중 물의 총량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대기중의 수증기가 증가한 양만큼 비, 눈 또는 우박이 되어 반드시 지상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영구 순환자원으로 부른다.

● 물과 사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그 생명의 원천을 물에 두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몸속의 수분함량은 사람과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몸의 약 70%정도가 물이다. 어린이 몸속에는 물이 더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어진다. 보통 사람은 몸 속에 약 45l의 물을 지니고 있다. 그 중 약 2.75l의 물을 날마다 갈아 넣고 있다. 몸 속의 물이 1~2%부족하게 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 정도가 부족해지면 혼수상태에 빠지며, 12%정도가 부족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물은 이산화탄소, 산소, 염분과 같은 생명에 필요한 물질을 용해하고 분배하는 일을 한다. 특히 인체에서는 혈액순환, 배설물 처리, 근육운동 등에 물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사람들은 물없이는 눈 한번 제대로 깜박일 수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물이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주요 태풍피해 현황

(단위 : 천원)

태 풍 이 름	내 습 년 월 일	피 해 지 역	사망 · 실종	재 산 피 해
사 라	59. 9. 10 ~ 17	영, 호남, 영동	849	2,457,797,983 (66,170,542)
카 멘	60. 8. 22 ~ 24	영남, 제주, 서해중부	35	164,367,172 (4,900,000)
노 러	62. 8. 2 ~ 4	중부, 호남, 제주	52	3,112,376 (114,982)
오 펄	62. 8. 7 ~ 9	중부, 호남	123	1,786,567 (66,002)
설 리	63. 6. 18 ~ 22	영, 호남	107	51,233,110 (2,281,939)
헬 렌	64. 8. 1 ~ 3	제주, 호남, 중부서해안	41	3,419,070 (205,130)
폴 리	68. 8. 15 ~ 17	제주, 영, 호남	73	43,542,582 (3,598,000)
을 가	70. 7. 3 ~ 7	남부, 영동	84	82,250,046 (7,917,952)
빌 리	70. 8. 30 ~ 31	제주, 호남, 서해지방	38	70,133,496 (6,751,530)
리 타	72. 7. 25 ~ 26	영, 호남, 제주	54	12,660,728 (1,508,900)
베 터	72. 8. 18 ~ 20	남부, 남해안	550	222,174,015 (26,478,600)
폴 리	78. 6. 19 ~ 20	영남	25	8,000,946 (2,502,887)
카 멘	78. 8. 13 ~ 20	제주남쪽	33	55,430,552 (17,340,000)
어 빙	79. 8. 16 ~ 17	제주, 경북, 호남	17	92,677,262 (34,412,000)
쥬 디	79. 8. 25 ~ 26	제주, 서해, 동해안	136	139,775,367 (51,900,000)
애 그 니 스	81. 9. 1 ~ 4	남해, 동해안	139	158,052,768 (98,208,217)
세 실	82. 8. 13 ~ 14	서해안지방	70	66,191,716 (43,049,395)
준	84. 9. 2 ~ 3	전국	189	250,363,820 (164,307,783)
키 트	85. 8. 9 ~ 11	제주, 전남, 경북	12	4,906,058 (3,247,869)
브 렌 다	85. 10. 5 ~ 7	제주, 영남, 동해안	69	42,366,099 (28,026,999)
베 라	86. 8. 26 ~ 29	영, 호남 및 중부지방	42	248,788,587 (162,302,047)
셀 마	87. 7. 15 ~ 16	영, 호남 및 중부지방	178	597,071,674 (391,297,894)
다 이 너	87. 8. 30 ~ 31	남부지방	73	168,766,436 (110,603,055)
쥬 디	89. 7. 28 ~ 29	경남, 남해안지방	20	174,503,525 (119,193,385)
클 래 디 스	91. 8. 22 ~ 24	영남지방	103	316,135,612 (235,722,087)
로 빈	93. 8. 8 ~ 11	영, 호남, 강원	6	113,624,450 (87,839,377)
재 니 스	95. 8. 25 ~ 27	중부	65	548,871,214 (456,252,049)
예 니	98. 9. 29 ~ 10. 1	경북 및 남해안	57	394,589,464

(98년 가격기준)

※() 안은 당해연도 피해액

태풍시의 행동지침

태풍주의보

● 행정기관(방재기관)조치

-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및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 확대 실시
- 해당지역 방송국에 주의보 발표 및 경계사항 보도 요청
- 수방자재와 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의 확보
- 배수문, 배수장, 양수기 및 하수도, 배수로의 점검 정비
- 댐과 저수지의 예비방류 검토 및 수문점검
- 수방단 및 민방위대의 비상대기 조치
-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지정과 고속도로 주행 차량의 속도제한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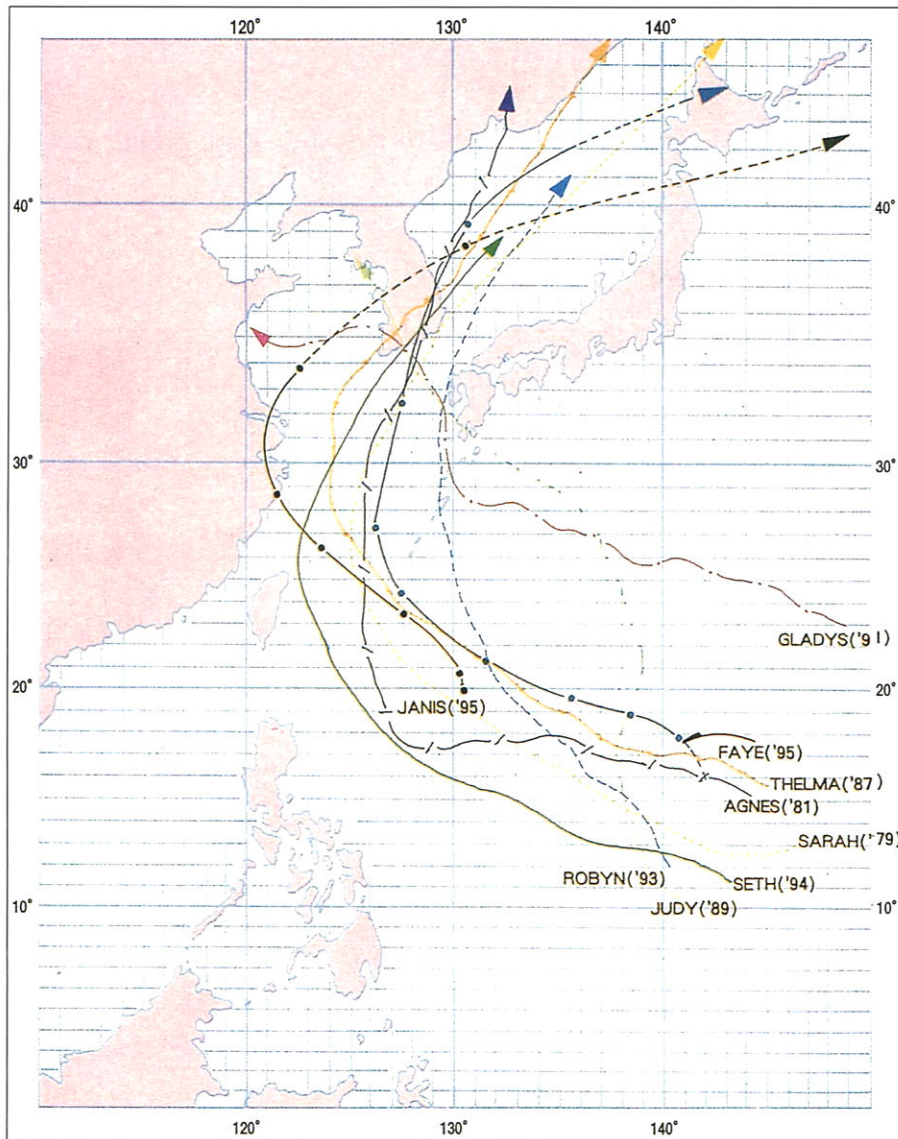
● 국민행동요령 전파조치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해 안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감시철저 - 고압전선 접근 금지 -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운행 -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배수문, 양수기의 점검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탑의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연락 - 출입문 및 창문등을 굳게 잠글 것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 예경보 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과 동일”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정비 - 소하천 및 간이취입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과 동일” - 해안 저지대 위험지역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준비 - 선박출입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결박 - 철거 가능한 어로 및 수산 증양식 시설물 철거

태풍경보

● 행정기관(방재기관)조치

-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및 재해대책본부 비상근무 확대 실시
- 해당지역 방송국에 경보 발표 및 경계사항 보도 요청
- 피해지역에 대한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배정
- 이재민 구호 및 방역실시, 사망 및 부상자 조치
- 댐과 저수지의 예비방류 실시
- 피해지역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 보고
- 피해 간선도로에 대한 우회도로 지정과 고속도로 주행차량의 속도 제한
- 시간대별 강수량 보고 및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 유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태풍 진로도】

● 국민행동요령 전파조치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해 안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주민대피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에 대한 접근 금지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저수지 및 배수문 수문조작 실시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 낙뢰가 있을 시 작업장의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운행 - 홍수위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과 동일”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정비 - 논둑보수 및 물꼬 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통행 - 산사태 위험지역 경계 강화 및 접근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과 동일”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 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 대피 - 해안가, 유원지의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조치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과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에 결박 - 해안저지대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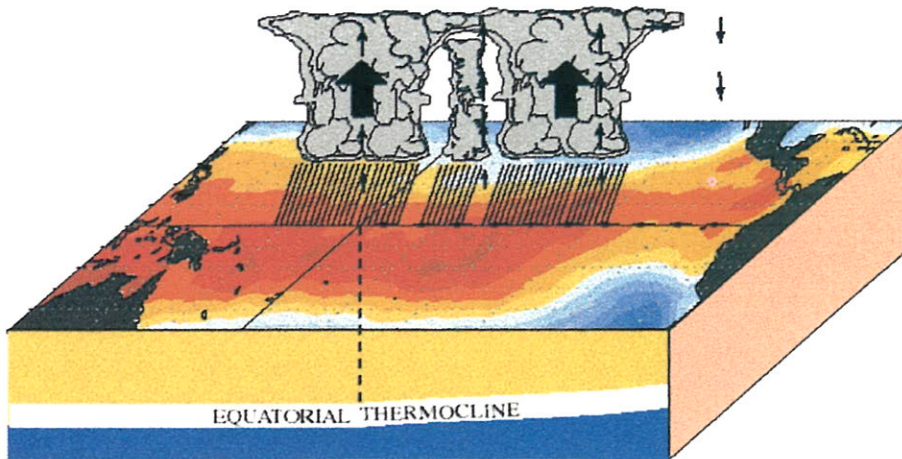
자료 : 기상청[태풍백서]

엘니뇨(El Nino)

엘리뇨란 스페인어로 남자아이(The child)아기예수를 의미하며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남미해안으로 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2~7년마다 한번씩 불규칙하게 발생하는데 주로 9월에서 다음해 3월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쳐 세계각지의 날씨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1950년대 이전까지 엘리뇨는 남미연안의 국지적인 현상으로 여겼으나 1950년대 들어 대기, 해양관측망이 발전하며, 엘리뇨는 태평양 적도지역의 중앙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적인 현상임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임하게 된다.

엘리뇨의 원인은 적도 무역풍의 약화가 주원인이며,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양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1년 ~ 1년반쯤 지속되는 엘리뇨현상에 대한 상세한 원인 등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엘리뇨 발생시 온도변화 및 대기흐름도】

엘리뇨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동남아시아, 호주북동부 등지는 강우량이 예년보다 적어지며, 태평양중부, 중남미지역에서는 강우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알래스카와 캐나다 서부에는 고온현상이, 미국 남동부는 저온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엘니뇨의 영향으로 82~83년 타히티로부터 인도에 걸쳐 가뭄과 산불, 홍수등으로 2천여명이 숨지고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페루는 GNP의 12%가량이 감소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이 11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고 곡물가격의 상승등으로 전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엘니뇨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엘니뇨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상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지난 여름의 대기 기상도로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엘니뇨의 발생년도 및 주요피해】

발 생 년 도	우리나라 주요피해
1951년 봄 - 1952년 겨울	
1953년 봄 - 1953년 여름	
1957년 봄 - 1958년 봄	59년 태풍" 사라" 피해
1963년 여름 - 1964년 겨울	65년 5~6월 호우피해
1965년 봄 - 1966년 겨울	67,68년 가뭄피해
1968년 가을 - 1970년 겨울	70년 봄 경기,강원 호우피해
1972년 봄 - 1973년 봄	7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
1976년 여름 - 1977년 겨울	77,78년 가뭄피해
1982년 봄 - 1983년 여름	81,82년 가뭄피해
1986년 가을 - 1988년 겨울	87,88년 가뭄피해
1991년 봄 - 1992년 여름	93년 설해, 냉해피해
1994년 가을 - 1994년 겨울	94,95년 가뭄피해
1997년 봄 - 1998년 봄	98. 7~8월 집중호우

아직까지 한반도에 엘리뇨 및 라니냐가 미치는 기상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보고가 나온것은 없지만 엘리뇨가 끝난후에 이상가뭄과 폭염등이 자주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 최근의 엘리뇨 현상이 발생한 97년초 9~10월의 남부지방 강우량이 평년의 15%에 불과했고 엘리뇨에 따른 한반도의 가뭄은 엘리뇨 발생후 9~15개월 사이에 가장 뚜렷이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작년 겨울의 가뭄은 이미 예견될 수 있는 기상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상청 전문가와 학계인사 등으로 엘리뇨대책반을 구성 내실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엘리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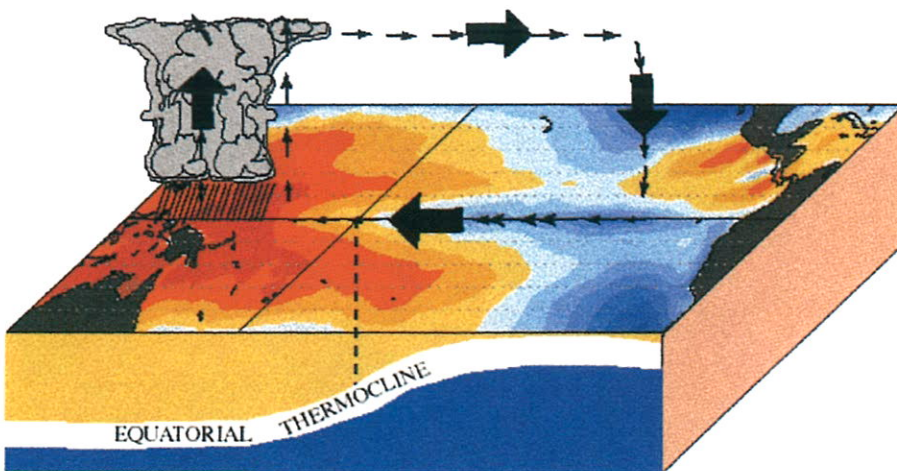


【98년 여름 한반도주변 대기의 기상도】

라니냐(La Niña)

라니냐(La Niña)란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엘리뇨의 반대현상으로 적도 무역풍이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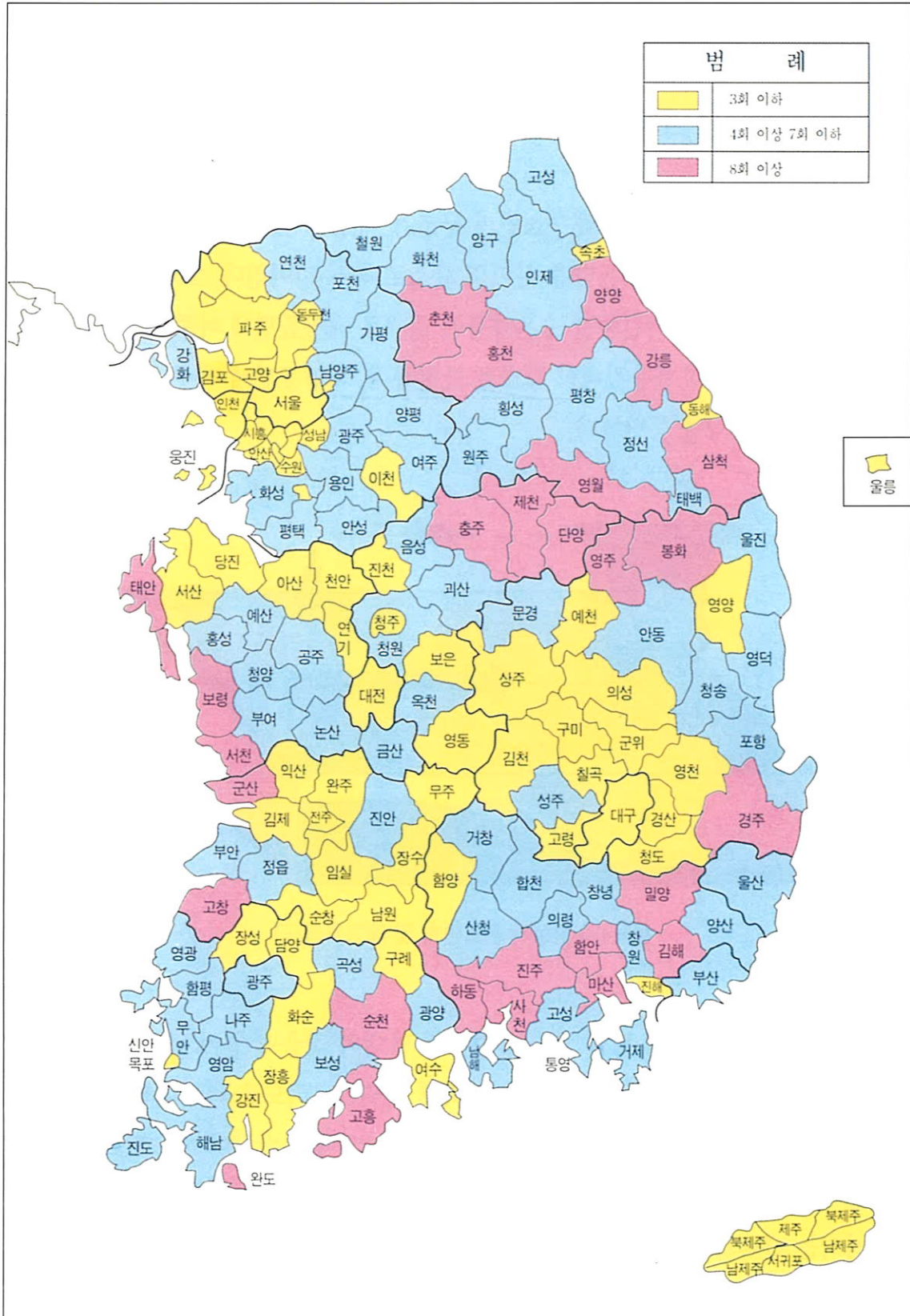
라니냐의 성장기 동안에는 해수표면의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온수대와 열대 동태평양을 가로 지르는 수온약층 깊이의 감소로 특징 지어진다. 또한 아주 강한 라니냐 기간에는 화장된 기간동안 수온약층이 실제로 해양표면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다. 이 냉각은 해양 혼합층깊이의 감소로 표현하며, 해양표면에 아주 가까운 영양이 풍부한 해수의 현상을 동반한다.



【라니냐 발생시 온도변화 및 대기흐름도】

라니냐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엘리뇨 현상과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서 강우량이나 온도분포가 엘리뇨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라니냐의 존재는 이 지역의 해양생활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며, 이 상태에 동반하여 해수면 고도는 동태평양에서 정상상태보다 낮아지며, 전 유역을 걸쳐 해양 표면의 고도의 기울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 10년간 시·군별 우심피해 발생빈도



회원명단

(가나다 순)

職 位	姓 名	所 屬 機 關	電 話
顧 問	柳 達 永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786 - 1754
”	黃 溫 順	徽慶學園 理事長	2244 - 2304
會 長	方 相 勳	朝鮮日報社 社長	724-5114
副 會 長	朴 勇 正	韓國經濟新聞社 社長	360 - 4101
”	崔 榮 熙	韓國女性團體協議會 會長	794 - 4450
”	河 永 錫	大田文化放送 社長	(042)222-3000
理 事	金 宇 中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3771-0114
”	文 太 俊	韓國社會福祉協議會 會長	712-0305
”	朴 權 相	韓國放送公社 社長	781-2311
”	朴 基 崙	大韓赤十字社 事務總長	755-9301
”	李 雄	韓國新聞協會 事務局長	733 - 2251
”	張 在 國	한국일보社 會長	724 - 2114
”	崔 文 基	韓國新聞放送編輯人協會 事務局長	732-1726
”	韓 重 光	韓國放送協會 常任理事 兼 事務處長	3219-5560
”	洪 錫 炫	中央日報社 社長	751 - 9456
監 事	朴 龍 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事務總長	576 - 5892
”	張 大 煥	每日經濟新聞社 社長	2000-2550
會 員	姜 大 榛	全國劇場聯合會 會長	735-3382
”	金 炳 琯	東亞日報社 會長	361-0114

職 位	姓 名	所 屬 機 關	電 話
會 員	金 相 廈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316 - 3502
"	金 淑 喜	大韓YWCA聯合會 會長	774 - 9702
"	金 在 正	서울특별시 醫師會 會長	676-9751
"	金 在 哲	韓國貿易協會 會長	551-0114
"	金 鎭 炫	문화일보社 社長	3701-5114
"	盧 成 大	(株)文化放送 社長	784-2000
"	朴 相 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785 - 0010
"	朴 鍾 植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2240 - 3114
"	宋 道 均	(株)서울放送 社長	780-0006
"	吳 杲 山	大韓佛教曹溪宗總務院 院長	739 - 5590
"	李 南 周	韓國YMCA全國聯盟 事務總長	754 - 7891
"	李 相 回	世界日報社 社長	799 - 4114
"	李 時 伯	大韓家族保健福祉協會	634-8211
"	李 允 鍾	林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416 - 9416
"	鄭 大 根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會長	397-5114
"	趙 富 英	大韓住宅公社 社長	(0342)738-3114
"	趙 希 竣	國民日報社 會長	7054 - 114
"	車 一 錫	대한매일신보사 社長	721-5114
"	崔 鶴 來	한겨레신문사 社長	710-0114



전국재해대책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TEL. (02) 3272-0123 (대)
FAX. (02) 3272-0122